

‘술값 안내기’ 꼴불견 1위는 ‘급한 약속’ 먼저 가는 사람

보해양조, 네티즌 설문 술자리에서 가장 꼴불견은 누구일까.

보해양조(대표 임건우)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 제일 꼴불견’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도중에 가는 사람이 28.4%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20.8%로 2위를, ‘술에 취해 자는 척하는 사람’이 11.3%로 3위를 차지했다. 또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람’과 ‘휴대전화 받는 척하는 사람’, ‘신발끈을 다시 묶는 사람’이 11%, 10.7%, 10.1%로 각각 4, 5, 6위를 차지했다.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도중에 가는 사람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같이 맛있는 먹고서 술값을 계산할 때쯤 바쁜 척하고는 꼭 먼저 가는 압제족이 있다. 친구사이에 자제했으면 하는 행동이다”와 “도중에 가는 사람은 남은 술자리까지 어색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해 관계자는 “술자리 문화는 변하고 있지만 술자리 에티켓은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술자리에서의 잦은 술값 회피는 자신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교회 1억 현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 기각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회에 1억 원의 현금을 낸 혐의로 검찰이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신앙에 따라 현금으로 낸 것일 뿐 남편의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현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먼 거액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아버지 죽인 패륜이지만 선처해달라”

광주 북부경찰청은 도박에 중독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본보 9월12일자 7면> 신모(20·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4일 구속했다.

신씨의 가족·친척·이웃 주민 등 20여 명은 이에 앞서 “신씨는 도박으로 인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다시 한번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환경 핑계 ‘발목잡기 소송’ 잇단 패소

‘무등산 공원 계획변경고시’ 무효소 기각

증심사지구 복원 ‘탄력’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 복원을 골자로 하는 ‘무등산도립공원기초계획변경결정고시’에 대한 시설 지구내 주민들의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4일 이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등산 공원계획변경결정은 증심사 지구의 노후 불량 건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의 행정계획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며, 사전 환경성 검토는 광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증심사 지구 및 주차장 예정부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의 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백모(55)씨 등 무등산시설지구내 주민 10명과 인근 마을 주민 170명은 광주시가 무등산 증심사집단지구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고신한 무등산도립공원기초계획변경결정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무등산증심사지구 자연복원 사업은 2008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내 건물 91동(상가

60, 주택 31)를 철거하고 이 일대 2만 6천평의 생태를 복원하는 대역사로, 현재 1단계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30% 정도 진행 중에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2단계 주차장·버스회차지 조성, 3단계 상가단지 조성·생태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원고 측 주민들도 복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14일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공사 현장. 주민들이 제기한 증심사지구자연환경결정고시에 대한 무효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증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주암호 하류 입지변경고시’ 무효소 기각

순천 환경센터 ‘급물살’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순천 환경센터(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 법원이 행정상 하자가 없다며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 들어설 환경센터 건립 공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4일 순천시 주암면 5개 마을 주민 10명이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환경센터 입지변경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토지들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결정할 이상, 입지 후보지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유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될 계획이고, 예정부지가 주암면 하류에 위치해 있어 유출수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순천시는 6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암면 구산리 5만3천여평에 소각시설·매립시설·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환경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모(63)씨 등 구산리 주민 10명은 순천시가 당초 서면 건전마을을 환경센터 입지로 결정했다가 올해 1월 구산리로 바꿨고, 이 과정에서 입지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주민들의 소가 기각된 만큼, 조만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설계·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공할 것”이라며 “오는 2010년부터는 환경센터가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파트 담장 관리부실로 사고

주민들 거액 배상금 물어

대표회의 임원들은 형사처벌

아파트 담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본보 2005년 4월 22일자 6면)때문에, 대표회의 임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주민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M아파트 102동 경비실 옆 담장이 갑자기 무너진 것은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장사를 나간 아

파트를 가리키면서 담장에 몸을 기대고 있던 이모(34)씨는 이 사고로 몸에 철근이 박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됐다.

이 담장은 ‘(주)보강건설안전공사’ 등이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담장에 균열이 있으니 즉시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고 권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M건설 측과 협의해 담장 재시공 대신 아파트를 도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이씨의 어머니 서모(여·60)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4명을 광주서부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 중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입건했다. 서씨는 또 손해배상을 청구, 광주지법은 최근 강제집행을 통해 ‘현(現) ‘입주자대표회의’는 1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 당시 대표회의가 아닌데다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없다면서, 전체 주민 370여 세대가 40만원씩을 나눠 부담기로 했다. 이들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M건설 측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이 나오려면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조대병원 환자 투신 자살

13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대병원 6층에서 김모(여·36·광주시 북구 문흥동)씨가 뛰어내려 숨졌다. 김씨의 오빠(38)는 경찰에서 “동생의 병이 갑자기 악화돼 이 병원 응급실로 옮긴 후 음료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면서 “그 사이 6층으로 올라간 동생이 난간에 매달려 있어 구하려 했지만 떨어지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의 유명 미용사인 김씨는 3년 전부터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특별한 이유없이 폐동맥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병)을 앓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영화배우 이지현 납치됐다 탈출

상나팔



○영화 ‘미인’ SBS 드라마 ‘순자’ 등에 출연한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지현(28·시진)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한때 납치됐다고. ○14일 경기도 양평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주차장에서 20대 남자 2명에게 납치된 후 수갑이 채워진 채 2시간 동안 끌려 다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유소에서 뒷문을 열고 탈출했다는 것. ○경찰은 범인들이 이씨의 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 중. /연합뉴스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TNGT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서빙현 111-0249

방수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특수방수제 드림고격이 드림특수방수제 드림고격이 080-362-7788